[UCI]I804:24011-200000234927

2005年 2月
教育學碩士(國語教育)學位論文

한국 고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樣相 硏究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專攻

姜 柾 旭

한국 고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樣相 硏究

- A Study on Aspects of Death in Korean Classic Novels -

2005年　2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專攻

姜　　柾　　旭

한국 고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樣相 硏究

指導敎授　金　樹　中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國語敎育)學位 請求 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4年　10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專攻

姜　柾　旭

姜柾旭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_____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_____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_____ 印

2004年　12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목 차

ABSTRACT ····· i

Ⅰ. 序 論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및 연구 방법 ·····2

Ⅱ. 한국인이 의식하는 죽음의 성격 ·····5

1. 종교에서 의식하는 죽음 ·····5

2. 고소설에서 의식하는 죽음 ·····11

Ⅲ. 죽음과 復活의 양상 ·····14

1. 感天에 의한 復活 ·····15

2. 佛心에 의한 復活 ·····19

Ⅳ. 죽음과 還生의 양상 ·····23

1. 세 번의 還生 ·····23

2. 세 선비의 還生 ·····27

Ⅴ. 죽음과 幻生의 양상 ·····31

1. 仙界로의 幻生 ·····32

2. 영웅으로의 幻生 ·····37

Ⅵ. 結 論 ·····42

參考文獻 ·····44

ABSTRACT

A Study on Aspects of Death in Korean Classic Novels

Jeong-wook Kang
Advisor : Prof. Su-jung Kim, Ph.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this thesis, the aspects of death are studied in Korean classic novels. Literature reflects the lives. So, the death is the popular subject matter among the various kinds of human matters in the novels. There are three kinds of aspects of death according to the ways of processes leading to death, and then how the revive.

The first aspect of death is to be revive as the same before death and continue to live. This is realized by the order from the heavens, the miracle drug and the sensation of the hero's true heart. These are reflected well in *Kim-Hack-Gong-Geon* and *Wang-Rang-Ban-Hon-Geon*.

The second aspect of death is to separate the soul and body, and then be revive and transform into other people or stick to them. He revived either a human being, animal, plant, or mineral like rocks. In korean classic novels, it is common to be revived to the other as in *Sam-Saeng-Rok* and *Sam-Sa-Hoing-Ib-Hwang-Cheon-Gi*.

The third aspects of death is to be revived into either a wizard or a ghost. This is the quite different from the first and the second. At the first, rebirth

is to return to oneself. Second, rebirth is to come to life again as the other creature. But the third is resurrection; which is to bring the life of the soul to the form of a wizard or a ghost. This is reflected well in *Sook-Young-Nang-Ja-Geon* and *Yoo-Moon-Seong-Geon*.

In this novel, death has the meaning of the discontinuance of the self-realization, and to solve this, it is necessary to revive. At the tip of suffering, the hero has died and death is transformed in heaven and he revives and enters a new self-realization. This thesis studies death and classifies it into three aspects of rebirth. Further the study on death must be done integrative and profoundly not only in Korean classic novels, but also in native songs and the Korean ode.

Ⅰ. 序 論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문학과 사상의 관련 양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다.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 방법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문학은, 문화의 여러 양식들과 다양한 연관성 위에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문학에 대한 이해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 전반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로 문학 작품에 나타난 죽음이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서의 죽음과 관련된 의식은 무교·유교·불교 등의 영향이 다층적으로 겹쳐 있는 양상을 보인다. 무교·유교·불교 등의 다양한 종교적 차원들이 축적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복합적인 관념과 다층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동양적 태도와 관념을 이해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새로운 사상과 종교가 수용되면서 기존의 관념과 의례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시대·성별·계층·지역에 따라 위 종교적 태도들이 누적되는 양상과 융합되는 비율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1] 따라서 우리 고소설의 작품에 등장하는 죽음의 양상에 대한 논의 역시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삶의 총체적 모습이 담긴 소설에 있어서 죽음이란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소설의 개별 작품에 나타난 죽음이 그 작품 속에서 어떻게 제시되어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 김동식, 「신소설에 등장하는 죽음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 11집, 한국현대문학회, 2002, p.11.

2. 연구사 및 연구 방법

죽음이란 문제는 삶과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우러지고 뒤엉켜 있으면서도 일정한 경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모습의 죽음이 보다 진일보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죽음이란 문제는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으로, 죽음의 세계를 상정하고 있는 종교적 문제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다. 따라서 그 동안의 연구 방향과 대상에 있어서도 원시 종교사상에서부터 무교·유교·불교에 이르기까지 고대인들의 삶 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사상에서 인식하는 죽음에 대해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것들이 개별 작품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주를 이루어 왔다.

박용식[2]은 전통 문화 속의 신앙적 요소들을 유형화하여 살피고 나서, 이를 고소설로 옮겨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기존의 개별 작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있어 왔던 작업에 반해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을 한국의 원시 종교의 형태로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설 전반을 통한 사상성을 추적하였다.

이인복[3]은 문학이 죽음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와 한국인의 죽음 의식이 신화와 전설에서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또 우리 고유의 정신과 습합하여 어떻게 정착·발전·변모되었는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궁구하려는 죽음의식의 문학적 전개를 추적하는 노력에 많은 시사를 준다며, 이상택[4]이 말한 고전 소설이 신성문학권에서 점차 세속요인의 혼류로 말미암아 세속화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고전소설을 신성소설과 세속소설로 나누고 있는 것에 대해 고전소설의 세속화는 곧 고전소설에서 죽음 의식이 상실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태상[5]은 신라 향가와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고대로부터 중세의 고소설

---

2) 박용식, 「고소설의 원시종교사상 연구」, 『민족문화연구총서』 제 17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4.
3) 이인복,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사적 연구』, 열화당, 1979.
4) 이상택, 「古代小說의 世俗過程試論」, 『古典文學硏究』 제 1집, 한국고전문학회, 1971.
5) 박태상, 『한국문학과 죽음』, 문학과지성사, 1993.

과 전통극을 거쳐 식민지 시대와 오늘의 젊은 작가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문제가 어떤 형식과 함의를 가지고 표출되고 있는가를 천착하여 한국문학에서 한국인이 죽음에 대해 어떤 의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김열규・박선경[6]은 한국인의 죽음관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 중 사후 세계를 드러내 보이는 죽음을 중심으로 한국인이 믿었던 사후 세계 및 생태적 우주관과 세계관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현수・김수중[7]은 한국문학에 있어서 죽음의 논의가 현대문학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고전소설에서의 죽음을 윤회업보의 죽음, 영원회귀의 죽음, 현실극복의 죽음, 상징적 죽음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의 죽음 의식과 개별 고소설 작품과의 관계를 본격적이고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김수중[8]은 한국문학의 원초적 양식인 신화에는 죽음의 문제가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고 고소설에서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는 종래의 연구와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죽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죽음 초극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신화와, 죽음이 실제화되며 자의든 타의든 불가피한 경험으로 인식되는 고소설에서의 죽음의 유형을 상호 연관지어 조명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다.

손길원[9]은 우리나라 고소설에 일반적으로 드러나고 광범위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도선적 사상의 실체를 해명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살피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편향적인 측면의 연구라고 지적되기도 하지만, 수많은 고소설 작품들 중 그 자신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도선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몇 개의 작품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도선석 요소와 사상이 현실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편임과

---

6) 김열규외 3인, 『한국인의 죽음과 삶』, 철학과현실사, 2001.
7) 이현수・김수중,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연구」, 『인문과학연구』제 13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1.
8) 김수중, 「韓國神話와 古小說에서의 죽음 超克 방법에 관한 考察」, 『한국언어문학』제38집, 한국언어문학회, 1997.
9) 손길원, 『고소설에 나타난 도선사상 연구』, 민속원, 1999.

동시에 작가의 의식적 지향이 작품화되어 초월적 세계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는 나름의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박대복[10]은 고소설의 독자층이 민중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민중의 종교로서 전승되었으며 다분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이라 할 수 있는 민간신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문학과 민간신앙 둘 다 인간의 삶에 바탕을 두고 존재하는 현상이라면 인간 삶의 중요한 계기는 공통적일 수밖에 없으며,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관심은 출생과 결혼 그리고 위기극복과 죽음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간 신앙적 요소가 고소설에 나타나는지를 살피고 있다.

김귀석[11]은 그의 논문에서 가정소설에 나타난 설화적 요소 중 죽음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죽음이 소재론적 차원이 아닌 존재론적인 차원의 위치에서 작품의 총체적 구조를 떠받치며 주제 의식을 심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토대로 한국인이 가진 사상적・철학적 바탕 속에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죽음은 개별 작품 속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시도할 것이다.

---

10) 박대복, 「고소설에 수용된 민간신앙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11) 김귀석, 「가정소설의 설화적 요소 고찰-죽음・재생・꿈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제 37집, 한국언어문학회, 1996.

Ⅱ. 한국인이 의식하는 죽음의 성격

죽음을 삶의 끝이라는 일회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다른 세상에서 영생하거나 또는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던 것은 인류 보편의 사고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영혼의 존재를 상정하여, 이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간 상태를 죽음으로 보아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혼의 힘으로 믿는 것이다. 이러한 영혼의 관념은 고대인의 사고로부터 현대 사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심층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바람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서 죽음과 관련된 인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무교·유교·불교 등 한국인의 사상적 기원을 이루고 있는 각 종교에서 제각기 나름의 형태로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각기 별개의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사상은 어느 한 종교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습합되고 융화되어 다층적으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한국 고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 연구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인의 정서에 내재되어 있는 生死觀과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논지 전개의 편의상 각 종교적 입장에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종교에서 의식한 죽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자연물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의 여러 종교가 있기까지 특정한 대상에 대한 믿음 체계가 매우 강하였다. 이 중에서도 巫教·儒教·佛教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들 종교 또는 종교적 의례 속에 죽음이란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巫敎는 먼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생활속에서 만들어지고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미신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 존재와 영향은 계속되어 오고 있다. 무교는 민중의 종교로서 큰 역할을 해왔고 한국인의 민중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은 인류의 오랜 관심사였으며, 巫敎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巫敎의 사고에서는 영혼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혼을 저승에 보내기 위해 저승까지 데려갈 차사를 불러 모시고 대접하는 절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영혼이 저승까지 편안히 가고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잘 살 수 있기를 기원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는데[12], 이는 巫敎의 매우 다양한 여러 의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속적 제의 요소들 속에서 죽음이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러 巫俗的 제의 중에서도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시왕맞이제'는 큰굿 열두거리 중 여섯 번째로 행해졌는데[13], 이 의식에는 인간이 死後에 저승까지 편안히 가고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잘 살 수 있기를 기원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죽음 및 사후 세계인 저승의 모습이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 제의적 형태에 대한 고찰보다는 그 면면에서 읽을 수 있는 죽음 및 생사관에 대한 몇 가지 것만을 다루기로 하겠다.

시왕맞이제 중 '방광침'이 의식은 死者를 위해 그가 저승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비는 것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회심곡'이라는 의식의 전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의식은 死者가 저승의 지옥에 도착하여 이승의 삶에 대한 죄값으로 형벌을 받은 후 저승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이승에서 다시 태어날 것인지를 심판받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巫敎에서 의식하는 죽음을 알 수 있다. 살아서는 이승, 죽어서는 저승이라는 관념적 구분이 명확

12) 김종의, 「한국인의 삶과 죽음」, 『철학논총』제 16집, 새한철학회, 1999, p.109.
13)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32.

하게 있으면서도 이승과 저승사이에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교류가 가능하였다고도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 이승에서의 죄에 대한 형벌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형벌을 거쳐야만 저승에 안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지옥이란 곧 저승에서 재생하기 위한 통과 의례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삶의 세계인 이승을 상대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보았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巫敎的 사고에서는 天壽를 누리지 못하고 非命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 죽음이 문제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집안에 憂患을 불러일으키고 死者 역시 寃鬼로서 이승과 저승사이에서 떠돌게 된다고 본다.[14] 이러한 경우에는 이승에서는 떠난 존재이지만 저승에는 완전히 편입되지 못해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로 설정하고 있다. 그 문제의 죽음이 단순 착오인 경우에는 다시 이승의 세계로 돌려보내어 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怨恨어린 죽음인 경우에는 지노귀굿, 혹은 씻김굿이라고 하는 死靈祭를 통해 잘 달래어 저승의 세계로 가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승에서의 최후의 심판 내용을 보면 巫敎的 生死觀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먼저, 인간은 죽은 뒤 저승에서 영원히 산다고 여기는 관념인 永生 觀念과 죽은 후에 種을 달리하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여기는 幻生 觀念 등으로 세분하여 볼 수 있다. 또한, 幻生에 있어서는 牛馬, 구렁이 등으로 태어나게 되는 나쁜 의미의 귀양적 성격의 것과 새, 나비 등으로 태어나게 되는 좋은 의미의 것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이 죽은 후 이승으로 幻生할 수 있는 것은 동식물로만 가능하다고 여기게 됨으로써 현생의 인간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이며 선하게 살아 갈 수 있게 한 정신적 기반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巫敎에서 제시하는 삶과 죽음의 의미는 不老不死의 도교적 이상이나 영생불멸과 부활을 추구하는 기독교적 신앙, 그리고 모든 육체적 고락과 정신적 번뇌로부터의 해탈을 구하는 불교적 소망과는 다르다. 즉, 사람은 자연 속에 태어나

14) 조흥윤, 『巫와 민족문화』, 민족문화사, 1990, p.127.

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죽을 때가 되면 죽더라도 살아 있을 동안에는 되도록 고생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슬픔으로 마음 아파하지 않고, 불의의 일로 놀래지 않고, 주어진 신분에 안정하여 평안히 지내다가 불의의 죽음을 당하지 말고 천명을 다 산 후에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락한 운명을 하자는 것이다.

반면, 儒敎에서의 死生觀은 한 마디로 말해서 鬼神論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교에서는 귀신이나 죽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공자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으며, 괴이한 것・억센 것・어지러운 것・신비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데,[15] 이것은 현실 중심의 유교가 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수용 방법이었는지도 모른다.

鬼神은 鬼와 神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鬼는 사람이 죽어서 되는 특수한 존재를 神은 天神 등 오묘한 功能을 지닌 보편 존재를 뜻하는 복합개념이다.[16] 위와 같은 태도는 유교 특유의 합리성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장의 밑바탕에는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람과 神이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나 귀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심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일원론적인 진리관이 놓여 있다.[17] 공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지만, 다른 곳에서는 귀와 신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 말의 근본은 그러한 인식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심성을 가꾸게 하려는데 있었다. 人鬼에게 제사드림으로써 孝를, 天神에게 제사드림으로써 敬을 마음속에 길러 주려는 것으로 鬼神의 존재론적 의미를 그의 인본주의 사상 체계 속으로 끌어들여 약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교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가족 단위 중심으로 추구해 간다. 유교는 개인을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고 항상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공동체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국가라는 공동체는 이 가족 공동체의 집합이라고 보고

---

15) 子不語怪力亂神 (『論語』, 「述而」) ; 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敢問死, 曰 "未知生, 焉知死?"(『論語』「先進」) ; 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論語』「雍也」)
16) 유인희, 「인간적 문화에서의 영생」,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국종교학회, 2001, p.17.
17) 김동식, 앞의 논문, p.15.

있다. 따라서 儒敎的 입장에서 한 개인의 인간적 완성과 행복은 모두 가족 공동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신념 체계가 바로 유교적 가족주의이다. 이처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주의를 추구하는 유교인지라 죽음과 그 극복 역시 개인적인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적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한 개인이 죽음을 피하여 영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 반면에 매우 현실적 합리주의자들이었던 儒學者들은 죽음의 문제 역시 상식적 합리성을 존중하는 수준에서 해결하려 하였다. 이는 바로 '후손을 통한 생명의 영속적 계승'이 그 해법이었다. 유교에서는 혈연에 입각한 가족주의적 결속감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가족은 마치 한 몸처럼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유교에서 개인은 언제나 '가족으로서의 개인'이다. 피를 나눈 가족 구성원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로 간주된다. 한 개인이 죽는다고 해서 개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혈연으로 얽혀진 가족이 이어지는 한, 개인은 가족의 몸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셈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극복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제사가 바로 이 '자손을 통한 영생'을 확인하는 의례인 것이다. 조상과 자손이 한 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죽음으로 인한 개인의 단절을 극복하고 있다.

이처럼 儒敎는 후손인 내가 존재하는 근거는 선조에게도 있으니 恭敬之心을 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것 또한 이치이기에 조상에 대한 가족 중심의 공동체적 행위인 제사는 조상의 혼백을 인정해서 드린다기보다는 차라리 존재와 존재원리가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이어지고 있는 그 엄숙한 사실 자체에 대한 경건한 확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경건한 엄숙성에서의 죽음에 대한 종교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것들을 매우 형이상학적이고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 존속하여 오고 있다.

佛敎는 흔히 '세속으로부터의 超然'이라는 인식 때문에 佛敎가 죽음의 문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쉽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불교의 논의도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여길 수 있다.[18] 하지만 죽음은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18) 정승석, 「죽음은 곧 삶이요 열반」,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국종교학회, 2001, p.22.

없는 현실이다. 붓다 역시 이러한 현실의 냉철한 自覺을 통해 죽음이라는 실상을 초연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진실을 체득함으로써 현실적 죽음의 문제가 극복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결국 죽음의 문제에 대한 불교의 대응은 인생의 모든 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죽음 역시 변화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적용하여 보면 죽음은 有의 斷滅이 아니다. 佛敎에서의 죽음에 대한 논의는 결코 죽음의 문제 자체로 한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열반이나 해탈 등으로 표현되는 죽음의 극복 문제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佛敎에서는 죽음을 단순한 물리적 현상으로서만 파악하고 있지 않다. 불교에서 죽음에 대한 해명은 '체온과 의식이 육체로부터 사라질 때 수명이 파괴된 것'이라는 정의로부터 출발하고 있듯이, 물리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식이 개재되어 있다는 입장으로부터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것으로 귀결되고 그의 해결도 마음의 자세를 통해 이루어진다. 불교에서는 육체의 몸으로서의 생명은 眞如自性이 머무르는 자연소재물의 집합체이므로, 죽음이란 우선 육신으로서 몸이 거기에서 빌린 자연에로 다시 되돌려주는 환원작용이므로 좋은 죽음이란 자연으로부터 빚진 육신의 몸을 자연에로 돌려주는 순환행위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19]

즉, 죽음의 문제란 곧 마음의 문제이며 순환의 문제라고 여기고 궁극적으로 무심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때 그 문제도 해결된다. 더 나아가면 무심이란 寂靜이며 열반이다. 그리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죽음을 포함하는 불교의 수행도 사실은 그러한 관찰적 수련이다. 또한, 이러한 수련은 差別相이 없는 궁극적인 진실의 세계를 사유하려는 것이다. 수행을 통해 이 과정이 내면에서 즉각적으로 완성된 결과를 正覺 또는 해탈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좋다.[20] 만일 죽음에 대한 고찰이나 인식이 물리적 현상의 측면에만 머무르게 되면, 죽음은 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고 이의 극복을 위한 무심 역시 의식의 無化를 추구하는 것인 양 이해

19) 김경재, 「불교와 기독교의 죽음이해에 대한 명상」, 『신학연구』 제 37집, 한신대학교, 1996, p.56.
20) 정승석, 앞의 논문, p.58.

된다.

이처럼 불교에서의 죽음에 대한 논의는 일체의 번뇌에서 해탈한 不生不滅의 높은 경지라는 涅槃, 또는 寂滅이라는 生卽死死卽生이란 緣起 혹은 空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의 죽음은 냉철한 자각에서 시작하여 물리적· 현실적 단절인 죽음을 영속적이며 현상 세계와 진실 세계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眞實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2. 고소설에서 의식하는 죽음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그 원인은 외부에서 오는 경우이지 아무 까닭 없이 자청하는 경우는 없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호흡의 정지나 맥박의 정지라는 생물학적인 문제를 넘어선다.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고 또 다른 삶의 세계라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죽음을 금기시하거나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 이는 죽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현실화하여 가까이 하기는 싫은 한국인들의 사고를 반영한 탓이라 하겠다.

한편, 인간 삶의 총체적 모습을 담는 것이 소설이라면 우리의 고소설 역시 사회문화적, 종교적, 철학적 문제 등이 어떤 형식으로든 나타나 있게 마련이다. 설령, 그것이 주제적 측면에서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소재적 측면에 머물지라도 그것을 통해 작품의 중심적 의미로 접근해 갈 수 있다면, 이 역시 그 나름대로의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고소설들에 죽음이 등장하는데 이 죽음이 중요한 동인이 되는 작품은, <이생규장전>, <숙영낭자전>, <유문성전>, <심청전>, <삼생록>, <삼사횡입황천기>, <당태종전>, <김학공전>, <왕랑반혼전>, <양산백전> 등이 있다.

<이생규장전>에서는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도적들에게 정조를 빼앗길 상황에 최랑이 "虎鬼殺啗我, 寧死葬於豺狼之腹中, 安能作狗彘之匹乎?"라고 하며 죽임을 당하는데, 이는 현실에서의 문제를 죽음으로써 밖에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치 못한 죽음이 그대로 현세와의 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최랑이 다시 환생하여 이생과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그 삶도 죽었던 자가 일시적으로 다시 재생한 것이기에 영원할 수는 없다. "冥數不可躲也, 天帝以妾與生, 緣分未斷, 又無罪障, 假以幻體, 與生暫割愁腸, 非久留人世, 以惑陽人."라며, 재생하여 즐거운 나날을 보낸 것도 한없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다음을 기약하고 자취를 감춘다.

이러한 삶과 죽음의 모습들은 당시 사람들의 死生觀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바람에 대해 죽어서라도 그 뜻을 이루길 바라는 사고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양산백전>에서는 주인공 양산백이 추양대와의 사랑을 못 잊고 상사병으로 눕게 되고, 남녀의 사랑보다는 부모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던 사회적 모순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신화와는 달리 고소설의 주인공은 신성성이 약화되고 일상적인 인물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고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21] 이처럼 주인공의 죽음은 자아 실현의 기회가 상실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은 불가피하게 되고 이후 양산백과 추양대는 천상계와의 연결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외에도 고소설의 많은 작품에서 죽음이 등장하는데, 죽음의 모습 또는 죽음 이후의 재생의 유형에 따라 그 양상을 復活과 還生, 그리고 幻生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復活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승에서 그 생명을 계속하는 것이고 還生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幻生은 죽은 사람이 생물체가 아닌 神, 精靈, 神仙 등으로 되거나 승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소설에서 부활적 죽음은 복합적으로[22] 나타난다. <숙영낭자전>의 경우 신령스

21) 조상조, 「神話와 古小說에 나타난 再生의 構造 硏究」,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33.

런 물건을 통해 부활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 남편 선군의 지극정성의 발원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부분과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실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생적 죽음은 특히 <삼생록>에서 잘 보여지는데 주인공 세 번의 還生을 통해 다양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죽음으로 단절된 주인공의 자아 실현은 또 다른 인간으로 태어나야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소설에서의 幻生은 대개 죽음 이후에 神仙이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長生不滅의 한국인의 관념을 소설 속에서나마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유문성전>이나 <숙영낭자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고소설은 주인공들의 초월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구성 또한 우연성이 남발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당대의 삶의 여건과 사회·문화적 제반 여건이 빚어낸 공통적 현상이다. 즉, 우연성을 빌리지 않고서는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은 충분할지 모르나 소설이 지향하는 또 하나의 특성인 진실성을 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죽음이란 문제도 경험론적 사고나 인과론적 측면에서는 합리적 요인이 결여될지라도 당시의 가치관이나 미의식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까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소설 특유의 구조적 특징으로 볼 때 인물 행위의 한 형국이고 작품의 주제를 이끌어가는 도구적 장치로서 죽음이 그 기능을 충분히 해내고 있기 때문에 작품 속의 다른 요소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22) 류병일, 「韓國敍事文學의 再生話素 硏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164.

Ⅲ. 죽음과 復活의 양상

復活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죽기 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이생에서 삶을 더해 가는 것을 말한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계기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하여 볼 수 도 있다. 먼저, 神物에 의한 復活은 약수·나뭇가지·구슬 등의 영험한 사물과의 접촉 또는 소유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설화에서는 단독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고소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復活과 같이 등장하고 있다. 그 까닭은 단순히 이야기적 측면이 강한 설화에 비해 소설이란 장르는 작가의 의도적인 창작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復活에 있어서도 다른 요인을 병용함으로써 이야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信心에 의한 復活이 있는데 이는 주로 佛敎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 죽은 사람의 가족이 극진한 정성과 기원으로 하늘이 감응하여 다시 살려주는 感天에 의한 復活 등이 있다. 어떤 계기의 復活이든지 명확한 것은 죽은 사람이 죽기 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즉, 感天에 의한 復活이라는 것은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다 이루지 못한 孝나 忠 또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죽은 사람을 살려 달라고 지극정성으로 발원하여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復活은 창작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설의 중·후반에서 작가의 의도대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 중심 인물 또는 중심 인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죽음으로써 이야기가 내리막을 향해가는 것을 정성껏 발원하여 부활하게 함으로써 죽기 전에 하려고 했던 일을 성취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시킬 수 있다.

소설을 읽는 독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善이 惡에 지거나 등장 인물이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대목에서 답답함과 패배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復活을 통해 못다 이룬 꿈을 펼치고 뜻을 다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復活的 죽음이 보이는 고소설 작품에는 <김학공전>, <김인향전>, <양산백전>, <왕랑반혼전>, <정을선전>, <심청전>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작품 중 상대적으로 復活적 죽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김학공전>과 <왕랑반혼전>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感天에 의한 復活 - <김학공전>

<김학공전>은 종들의 모반으로 벌어지는 종과 주인 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피해자인 주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관되고 끈질긴 복수의식을 갖고 가해자인 종들을 찾아가서 철저하고 잔인하게 복수하는 소설이다.[23] 이처럼 독특한 내용으로 인해 우리 古小說史에서 볼 수 없었던 매우 이질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른 고소설 작품들에 대한 연구에 비한다면 그다지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학공전>은 신분제도가 흔들리던 조선 후기 사회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고 결혼이라는 중요한 의식에서도 신분의식을 거부하고 있다. 김동지가 학공의 기상을 보고 사위로 삼고자 할 때 그의 처가 학공의 지체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하자, 김동지는 대소하며 "엇지 이다지 무심혼요. 왕후장숭이 씨가 잇시리요. 잔말 말라" 하고 처를 꾸짖는다. 신분을 무시한 결혼은 조선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였는데, 소설 속에서는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와 같은 <김학공전>의 내용을 개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인공 김학공은 재상 김태가 백일기도해서 늦게 얻은 자식이다.
㉡ 김재상은 남매를 낳아 놓았지만 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 노복 중에서 박명석이란 자가 동류와 공모하여 학공 모자를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려 한다.

---

23) 전경욱, 「金鶴公傳 異本攷」, 『古典文學硏究』 제 9집, 한국고전문학회, 1994, p.23.

㉣ 이를 안 학공의 어머니는 굴을 파서 노비 및 전답 문서와 학공을 몰래 숨겨 놓은 뒤 피난길을 떠난다.

㉤ 노복들은 학공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도라는 섬으로 가서 한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된다.

㉥ 이날 밤 김학공은 시비인 춘섬과 함께 집을 떠난다.

㉦ 학공이 15세가 되었을 때, 계도에 들어가 김동지의 집에서 살게 된다.

㉧ 그의 인물됨을 알아본 김동지가 서당에 보내어 공부도 시키고 자기의 딸인 별선과 결혼시킨다.

㉨ 학공은 집을 떠나오면서 지녔던 전답문서를 가까운 곳에 묻어 두고 간혹 꺼내어 보다가 김동지에게 발각되어 부득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된다.

㉩ 이 사실을 엿듣고 있던 동지의 아내가 취중에 말을 실수하여 이 사실이 계도에 살고 있던 노복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 노복들이 학공을 죽이기로 결정했음을 알게 된 별선은 남자 복장으로 학공을 가장하여 학공 대신 죽음을 당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

㉫ 여장을 하고 섬을 탈출한 학공은 방황을 하다가 아버지의 옛 친구였던 황승상의 수양아들이 되고, 황승상의 친구인 임감사의 무남독녀와 혼인하여 살아가게 된다.

㉬ 학공은 별선의 꿈 속 암시를 받고 과거에 응시했는데 장원급제하여 강주자사가 된다.

㉭ 학공이 부임지로 가는 도중에 헤어졌던 어머니와 누이를 만나고 계도에 들어가 원수를 갚는다.

㉮ 전처인 별선의 원혼을 위해 제사를 드리자 죽은 별선의 시체가 떠오른다.

㉯ 神物을 먹인 후 별선을 살리고 학공은 후에 벼슬이 승상에 오르고 자식을 낳고 부귀를 누린 뒤 仙界로 들어간다.

위의 내용처럼 <김학공전>은 주인공의 죽음을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인공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 아내 별선이 자신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크게 주인공의 삶에 아픔으로 남게 된다. 더군다나 그 죽음이 계속된 奴屬들의 끊임없는 죽임의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물론 남편이 죽으면 응당 자기도 절개를 지켜 따라 죽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자신이 대신 죽어 남편을 살려 원수를 갚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다분히 유교적인 女必從夫의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비판적 요소로 해석되기도 하지만[24] 이러한 점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므로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별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과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 …만일 낭군이 죽ᄉᆞ오면 부모의 원슈를 뉘라셔 갑ᄉᆞ오릿가 이몸을 ᄃᆞᆨ신ᄒᆞ여도 어두운 밤에 엇지 알니잇가 알니가 업슬거시니 낭군은 의복을 밧고아 입고 낭군 누엇든 ᄌᆞ리에ᄂᆞᆫ 쳡이 눕고 쳡이 누엇던 ᄌᆞ리에ᄂᆞᆫ 낭군이 누어잇ᄉᆞ오면 침침ᄒᆞ은 야ᄉᆞᆷ경에 뉘라셔 분별ᄒᆞ오리오 낭군은 상투를 풀어 당기를 드리고 쳡은 머리를 풀어 상투를 ᄒᆞ오면 져놈들이 어두운 밤에 상투를 잡아ᄂᆞᆯ 것이니…[25]

위에서 보듯이 부인 별선은 스스로 남편인 학공의 죽음을 자청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베푼 잔치에 참여할 정도로 아둔한 학공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학공으로 하여금 복수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26]

> …일시에 창검을 들고 드러와 살펴보니 각각 누엇거ᄂᆞᆯ 어루만져 상토를 잡아 끌어ᄂᆡ니 별션이 잡히여 나가ᄂᆞᆫ지라 ᄒᆞᆫ놈이 달려드려 칼로 지르거ᄂᆞᆯ 별션이 ᄂᆞᆯ가하여 함구불언ᄒᆞ고 죽는지라 그 놈들이 죽은 신체를 폭포슈 흐르는 물에 던지고 가거ᄂᆞᆯ…[27]

---

24) 고전문학실편, 『한국고전소설해제집』, 보고사, 1997, p.261.
25) 김학공전, pp.146-147.
26) 임원균, 「고소설에 나타난 죽음과 재생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12.
27) 김학공전, p.149.

이처럼 별선은 끝내 학공을 대신해서 죽게 된다. 하지만 학공은 계속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발전적 행보를 걷지 못하고 오히려 답보적인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내 별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 대해 깊은 자각을 가지고 보다 진취적이며 자신의 삶에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본인이 직접 죽음을 당하지 않고 곁에서 일어나는 죽음을 통해서 한 개인이 이전과는 아주 상이한 인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우연한 시기적 일치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소재적 측면에서라도 죽음이란 하나의 사건이 주인공인 김학공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만행에 김학공은 격분하지만, 奴屬들에 대해 즉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난국을 벗어나 신분적 상승을 꾀한 이후에 다시 되돌아와 그들을 모두 징치한다. 그 후 김학공은 계속적으로 죽은 별선의 영혼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온갖 정성을 다하여 수륙재 등을 지낸다. 결국 이에 감복한 하늘이 노인이라는 신비스런 인물을 등장시켜 별선과의 해후를 다음과 같이 기약한다.

> …히로서 뗴구른이 이러ᄂᆞ며 운무ᄌᆞ옷ᄒᆞ며 비가 오더니 ᄂᆞᆫᄃᆡ업ᄂᆞᆫ 로장이 나려와 아로ᄃᆡ 정셩이 지극ᄒᆞ면 지셩이 감천이라 ᄒᆞ엿스니 졍셩을 지국히 드리면 별낭ᄌᆞ를 보려니와 그러치 아니ᄒᆞ면 빅년이라도 보기 어려울 것이니 부디 졍셩을 더 드려보라 하거ᄂᆞᆯ 자ᄉᆞ 문왈 노장은 뉘라 ᄒᆞ시며 어ᄃᆡ 계시닛가 ᄒᆞᆫᄃᆡ 노장이 답왈 나ᄂᆞᆫ 슈즁직힌 신령이어니와 젼일에 별낭ᄌᆞ가 마음이 착ᄒᆞ고힝실이 긔특ᄒᆞ기로 옥황상졔게셔 월궁으로 졍ᄒᆞ야 게시니 보기가 졸연치 아니ᄒᆞ니 보려ᄒᆞ옵거던 지셩을 드리라 ᄒᆞ고 간ᄃᆡ업거ᄂᆞᆯ[28]

이 대목에서 하늘은 '우주만물을 주관하는 天神'을 뜻하기도 하고, '자연물로서의 하늘'을 뜻하기도 한다. 그 어떤 것이든 둘 다 신이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신성시되며, 바로 이러한 존재가 感天하여 復活을 주재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신앙에서

28) 김학공전, p.173.

는 하늘·땅·산·강·바다 등 자연물과 호랑이·구렁이·말·곰·까치 등의 동물을 신성시하거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행위를 禁忌視 하고 있다. 이런 신성시 되는 대상물들은 일상적이고 일회적이지 않은 영속적이고 특이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여기서 영속성, 즉 영원성은 코스모스의 시간성을 초월한 카오스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신과 마찬가지로 신이한 힘을 가지기도 한다. 이렇듯 천신으로서의 하늘도, 자연물로서의 하늘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여하튼, 김학공은 더욱 정성을 들이게 되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죽었지만 살아 있을 때의 모습으로 가슴에 온기가 있는 별선을 만나고 회생단이라 영물을 통해 별선을 살리게 된다. 이와 같은 별선의 부활은 살아 있을 때의 착한 마음씨와 남편을 위해 대신 죽은 기특한 행실, 그리고 학공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 하늘이 살려주는 感天復活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佛心에 의한 復活 - <왕랑반혼전>

<왕랑반혼전>은 고소설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자치하고 있다. 염불 공덕을 고취하여 일반 서민을 교화할 목적으로 쓰여진 불교소설로써 어렵게 생각해 오던 佛敎의 교리를 왕랑이라는 소설 주인공의 행위를 통해 아무리 惡業을 쌓은 사람도 아미타불을 念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적을 보임으로 해서 무지한 민중들에게 부처에 대한 信心을 심어 佛敎布敎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29]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염불을 권하는 불교 설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등장 인물의 성격이 설화적 차원을 넘어 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설로서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왕랑을 잡으러 온 귀사들 사이의 갈등에서 이런 점을 뚜렷이 알 수

29) 권우행, 「王郎返魂傳 形成에 關한 一考察」, 『국어국문학 논문집』 제 5호,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2, p.112.

있다. 같은 명부의 사자이면서도 첫째 귀사는 염불하는 왕랑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염왕의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탄식하며 동행하기를 청한 데 비하여 셋째 귀사는 염왕이 왕랑을 엄히 매어 데려오라 했으니 그대로 집행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남은 귀사는 자신들이 선도를 닦지 못하여 귀보를 벗지 못했으니 차라리 죽을 죄가 될지언정 감히 염불하는 사람을 매어 가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개성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크게 네 가지 설화적 화소를 보인다. 죽은 사람의 혼백이 산 사람과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와 명부의 왕(염왕)이 현세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저승에 갔다가 다시 현세로 되돌아오는 이야기와 죽은 이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육체에 옮겨 넣어 재생한다는 이야기이다.[30] 이러한 설화적 화소가 등장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주축으로 유기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 佛心에 의한 復活 역시 이러한 화소의 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년 전에 죽은 아내 송씨가 명부의 일을 전하기 위하여 왕랑을 찾아왔다.
㉡ 명부에서는 전일에 왕랑 부부가 이웃집 안노숙의 염불 행위를 비방한 죄로 먼저 송씨를 잡아갔다.
㉢ 염왕은 송씨 죽은 지 10년이 되도록 여전히 염불을 하지 않는 왕랑을 잡아다가 문책할 계획을 세웠다.
㉣ 염왕이 왕랑을 잡으러 차사를 보냈으나, 차사들이 와서 왕랑을 보고 결박하지 않고 명부로 모셔갔다.
㉤ 염왕은 귀사들에게 왕랑이 참회하고 염불을 하더라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 시왕(王)이 왕랑의 염불 공덕을 인정하여, 부부의 수명을 연장시켜 인간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하였다.

30) 정겸섭 외2, 『고전문학의 이해와 감상』, 문원각, 2000.

㉦ 송씨는 죽은 지 오래 되어 육신이 없어졌으므로, 마침 죽어 명부에 와 있는 월씨(月氏)국 옹주의 몸에 붙이어 환생하게 하였다.

㉧ 염왕이 왕랑 부부에게 염불 정진하고 안노숙을 존경하라 당부하며 인간 세상으로 내어 보냈다.

㉨ 왕랑은 본래 몸으로 태어나고 송씨는 옹주 몸으로 환생하여 염불 공덕을 쌓아 함께 극락 세계에 왕생한다.

위와 같은 구조를 갖춘 <왕랑반혼전>은 매우 불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이다. 불교의 포교를 위해 지은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웃집 안노숙이라는 노인이 부처를 위해 염불을 하는 것을 비방한 것에 대해 부인 송씨를 잡아가고 다시 왕랑을 잡아들이려 하자, 이를 안 부인 송씨가 미리 남편 왕랑에게 와서 계책을 일러 준다.

> 아릐 염왕이시르 의논호미 오란디라 오ᄂᆞᆫ 아ᄎᆞᆷ애 그ᄃᆡ 자ᄇᆞᆯ치ᄉᆞ 다ᄉᆞᆫ 귀신이 오ᄂᆞᆫ니 그ᄃᆡ 집 가온ᄃᆡ 미타ᄒᆡᆼ을 션녁벽의 노피 걸고 그ᄃᆡ 동으로 안ᄯᅩ 셔를 향ᄒᆞ야 미타불을 념ᄒᆞ라[31]

그 계책은 다름이 아닌 자신들이 비방하였던 부처에 대한 염불이었다. 산 자가 꿈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 넘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고대 한국인들의 관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죽은 부인 송씨가 일러준 대로 하자 다섯 귀신이 이승으로 왕랑을 잡으러 왔다가 열심히 염불하는 것을 보고 곧 감동하여 위로까지 해주면서 데리고 간다.

> 내 명간애 ᄉᆞ쟈 되연디 이제 이믜 ᄇᆡᆨ천 겁이로ᄃᆡ 부텨 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악도 듕애 뼈러디ᄆᆞᆯ 보디 몯게라.

---

31) 보우, <왕랑반혼전>, 『권념요록』, 고려대학교 도서관 영인본, p.101.

이와 같이 귀사들을 속이게 되고 귀사들이 염왕에게 본대로 고하고 왕랑은 다음 장면과 같이 그 수명을 더하여 살아나게 된다.

> 부쳐을 인간ᄋᆡ 도로 ᄒᆞ야 기친 명이 셜흔 ᄒᆡ어을년을 여슌ᄒᆡ올 더ᄒᆞ야 브즈런이 닷가 졍진ᄒᆞ야 미타불을 렴ᄒᆞ야 썰리 세계예 가시리니 우리돌 시왕도 다 져방의 니르게 ᄒᆞ쇼셔 위ᄒᆞ야 보내뇌다.

이후 주목되는 것은 왕랑의 성격 변화이다. 왕랑은 불교를 배척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죽은 부인 송씨가 염불할 것을 간청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염부에 가서 신불자로 인정되어 환생한다. 이후로부터는 독실한 신불자로 변화하게 된다. 이것은 왕랑이 명부 즉 타계의 실상을 확인하고 불교에 귀의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불교에 귀의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동인을 제공해 주는 소설 속의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나 불교의 번창을 바라는 마음도 작품 전반에 내재되어[32]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왕랑은 생명도 연장을 받게 되고 죽은 아내 송씨도 공주의 몸을 빌어 다시 태어나서 일백 마흔 일곱 해를 해로한 후 극락국에 들어간다.

佛心에 의한 復活은 불교적 색채가 짙은 작품에는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 있음 상정하고 있는데 그 중 <왕랑반혼전>의 경우가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32) 서규태, 「왕랑반혼전의 사상과 구조」, 『국어국문학』104호, 국어국문학회, 1990, p.64.

Ⅳ. 죽음과 還生의 양상

예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관념이 있었다. 또한, 죽은 이후에 다시 현세로 돌아온다는 사고도 있었다. 현세로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돌아오느냐에 따라 還生的 죽음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33] 다른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며 동물로 태어나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나무나 꽃과 같은 식물로 태어나기도하며 바위와 같은 광물로 태어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이 나타나는 것은 기층민들에게 널리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나 민담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 『삼국유사』 권5에 있는 김대성에 의한 불국사와 석굴암의 사찰 연기설화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도 굶주리고 고생하던 아이가 재상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還生的 죽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뱀이 된 처녀', '파랑새로 변한 어머니', '벌이 된 장사' 등의 이야기에서도 살필 수 있으며, 거듭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하는 <삼생록>이나 세 명의 선비가 저승에 가서 각각의 소원을 비는 <삼사횡입황천기> 등의 고소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 세 번의 還生 - <삼생록>

<삼생록>에서는 두 번의 죽음과 세 번에 걸친 인간으로의 還生이 나타난다. 선계의 존재인 향난과 만춘이 사랑을 나눈 것이 죄가 되어 문초를 받고 拘禁되어 있다가 지상으로 귀향된 이후에 준과 설낭으로 태어나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살아간다. 설낭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무쳐 죽음에 이르고 연이어 준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칠성에게 자신의 命을 재촉하여 죽음을 맞이한다. 천상계에서 다시 만

33) 류병일, 앞의 논문, p.38.

난 이들은 男女를 달리하여 태어나는 것으로 다시 인간계로 내려온다. 첫 번째의 還生과 같이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결혼하여 살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아내인 여랑은 스스로 자결하여 죽는다. 또 한번 천상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재상가와 왕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부러울 것 없는 모습으로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며 공덕을 쌓아 본래 수명보다 오래 살고 귀양까지 풀린 이후에 다시 천상계로 올라가는 것으로 작품은 끝이 난다.

작품의 순차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 仙界의 존재인 향난과 만춘이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를 목격한 칠성마마가 이들을 잡아다 懲治해야 한다고 한다.
㉡ 서왕모와 후토부인이 두 사람을 문초하나, 염라대왕의 부인 강씨가 두 사람은 삼생의 연분이 있다하여 인간으로 귀양 보내는 것이 좋겠다한다.
㉢ 이에 서왕모는 제석부인에게 두 사람을 인간계로 적강하라고 한다.
㉣ 만춘은 조광의 아들 준으로, 향난은 설가촌 설 군관의 딸 설낭으로 태어난다.
㉤ 조준은 열 살에 부모를 여의고 몸을 의탁하던 조고의 추천으로 승상 이사의 사위가 되고 벼슬이 어사대부에 이르게 되지만 난리를 만나 가족을 잃고 떠돌아 다닌다.
㉥ 설가촌에 이른 조준은 설낭을 만나 재혼하고 살다가 5년간 진중에 나가 있던 중에 설낭은 남편을 기다리다 병이 든다.
㉦ 조준은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지만 설낭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내를 잃은 조준도 칠성에게 자진하여 죽음을 빌어 세상을 떠난다.
㉧ 두 사람은 다시 천상에 올라가서 성심각에 갇혀 있다가, 서왕모의 명령대로 제석마마는 두 사람이 고락을 고루 알도록 남녀를 바꾸어 재차 환생하게 한다.
㉨ 향난은 산동 조순의 無女獨子 원으로 태어나고 만춘은 화산 여총의 無男獨女 여랑으로 태어난다.

㉦ 조원은 현숙하다는 소문을 듣고 여랑을 찾아가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고 동침한 다음, 信物을 받아가지고 돌아온다.

㉧ 조원은 결혼을 준비하던 중 전장으로 나가고 난을 만나 여랑은 가족들과 헤어지고 도적에게 사로잡힌다.

㉨ 계양태수가 된 조원은 여랑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에 여랑이 보낸 신물을 보고 구출하여 와 결혼식을 올리고 여랑의 가족을 찾아서 한 마을에서 모시고 산다.

㉩ 행복하게 살던 중 조원이 세상을 떠나자 여랑도 자결하여 세상을 떠난다.

㉪ 천상계로 올라간 만춘과 향난은 다시 성심각에 갇히게 되지만, 서왕모의 말에 따라 두 사람을 왕가와 재상가에 태어나게 한다.

㉫ 만춘은 원나라 상서 이세총의 작은 아들 만춘으로 태어나고 향난은 세종황제의 공주 향난으로 태어난다.

㉬ 황제가 부마 간택을 할 때 여러 비범함을 보인 만춘은 부마로 뽑혀 향난공주와 결혼한다.

㉭ 부마와 공주는 세상을 돌며 풍류를 즐기고 거지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

㉮ 이 둘의 칭송 소리가 천상계에 들리자 옥황상제는 두 사람의 수명을 10년씩 연장해 주고 자식을 점지해주며 죄를 용서하여 귀양을 풀어준다.

㉯ 옥황상제가 발을 다쳐 병을 고치게 별주부를 불렀으니, 공덕을 많이 한 사람 둘이 어루만져야 낫겠다고 하자 두 사람은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천상으로 올라간다.

㉰ 두 사람이 옥황상제의 발을 만지자 씻은 듯이 나았다.

㉱ 一品 仙官・仙女로 昇品된 만춘과 향난이 각각 극락전과 연화대에 도임한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 인간이 여러 차례 還生한다는 것이다. 조금은 황당하다고 할지도 모를 이야기이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어떠한 사상적 토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면 다르게 여겨질 수도 있다.

<삼생록>은 도선적 인물의 전형성을 상당부분 엿볼 수 있다. 도선적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비범성을 가진다. 그것은 주인공의 신분이 천상계의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 그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만춘과 향난이 그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천상계의 인물로 설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비록 향난의 신분이 시녀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천상계의 인물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물론 정통적인 도선적 소설이라 하기는 주인공들이 보여준 행적을 토대로 한다면 조금 빈약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듭 되는 죽음을 통해 비범한 기운을 보이고 인간계에서의 공적을 쌓아 나간다는 것이 바로 도선적 인물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다.

이제 이 작품에 나타난 죽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죽음은 시간과 공간의 단절이기도 하고 영속적 세계로의 관문이기도 하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체계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이 작품에서는 죽음을 통하여 천상계와 인간계를 넘나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還生을 하는 것으로 됨으로써, 죽음이 천상계와 인간계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죽음을 단지 현세적 삶의 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무엇을 상정하는 죽음에 대한 인식 또는 사후 세계관에 대한 표현이 도선적 요소와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고소설 <월영낭자전>에서 공간적 제약이 없고 과거나 미래가 현재처럼 나타나기도 하는 꿈의 기능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이를테면, <월영낭자전>에서는 꿈을 통하여 선계와 지상계로 이동하고 주인공의 전생이 천상에서 선과 선녀였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삼생록>에서 죽음이 지니는 역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삼생록>의 내용 전개를 적강소설의 전반적인 구조에 맞추어 살펴보면, 천상질서의 파괴 - 謫降 - 세속적인 삶 - 천상질서의 회복[34]으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적강 소설의 범주에서 보았을 때 적강하는 이유가 그 동안 선계에 없던 이변(사랑을 나눈 것)을 저질렀기 때문인데 이는 바로 천상질서의 파괴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천상 질서를 어지럽혀 주인공이 인간계로 적강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든 선계의 개입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대개의 경우 주인공이 지니고 적강하

34)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새문사, 1989.

는 본연의 비범함을 발휘하는데 더욱 빛을 발하게 하거나, 주인공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개입하게 된다.

<삼생록>에서도 선계의 개입이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還生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 자신을 그리워하다 병을 얻어 끝내 세상을 떠난 아내를 따라 자신도 세상을 떠나고자 칠성에게 죽음을 비는 대목이다. 죽음이란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즉, 하늘에서 내려준 제 수명대로 살 수 밖에 없다고 여기던 것이 한국인들의 관념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상황, 또는 죽음을 갈구하는 상황에서 인간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은 차마 못 할 일이거나 금기시 되는 일이기에 목숨을 부여해준 선계에 다시 자신의 수명을 거두어 달라는 절실한 바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이은 죽음과 그에 따른 還生을 하는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작품 속에 죽음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다른 고소설 작품들과 비교하면서 그 공통적인 역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삼생록>에서 만이 볼 수 있는 죽음이 가지는 특유의 의미까지도 살피는 작업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품 <삼생록>에서 죽음이 표현되는 형태와 그 의미 관계를 한국인의 삶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작업이 향후에 계속 정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로 남는다.

2. 세 선비의 還生 - <삼사횡입황천기>

<三士橫入黃泉記>는 현실 세계가 아닌 사후의 세계, 즉 저승에서 일어난 사건을 단편적 수법으로 처리한 작품으로서 靈魂不滅觀과 來世觀을 바탕으로 여기에 조선 선비들의 幸福觀이 합쳐져 형성되어 있다. 『삼설기』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부분은 저승사자가 잘못 데려온 사

람을 이승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는 이야기이고, 뒷부분은 이승으로 돌아갈 세 사람이 염라대왕에게 각기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내용이다. <삼사횡입황천기>의 분량은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의식하는 죽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어떤 인생을 지향하였는가 등의 문제가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의 순차적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에 사는 세 선비가 공부를 하다가 어느 봄날 백악산으로 놀러 갔다.
㉡ 세 선비는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취해 쓰러진다.
㉢ 사람을 잡으러 돌아다니던 저승차사가 세 선비를 보고 죽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잡아갈 사람이 부족하자 그대로 데려간다.
㉣ 세 선비는 염라대왕에게 억울하게 잡혀왔음을 호소한다.
㉤ 壽命簿와 대조하여 壽限이 다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 靈魂을 돌려보내 復活시키려 하지만, 屍身이 없어 다른 命運을 지닌 인물로 還生시키기로 한다.
㉦ 세 선비에게 소원을 이야기 하게 한다.
㉧ 첫 번째 선비는 武官으로 출세하게 해 달라고 하자 그 소원을 들어준다.
㉨ 두 번째 선비는 文官이 되게 해 달라고 하자 그 소원 역시 들어준다.
㉩ 세 번째 선비는 知分知命하여 병 없고 성한 몸이 明哲保身하고 명대로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한다.
㉪ 염라대왕은 세 번째 선비의 소원을 듣고 욕심이 많고 불측한 놈이라고 야단치고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위와 같은 구조를 지닌 <삼사횡입황천기>는 저승사자에게 잘못 잡혀가 저승으로 간 세 선비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염라대왕이 이들을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기까지의 줄거리를 지닌다. 죽은 다음에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불교의 영향을 받은 무속적 사고에 기반을 둔 것들이 많다.

위와 같은 줄거리를 지닌 〈삼사횡입황천기〉는 〈왕랑반혼전〉이나 〈당태종전〉 같은 佛敎的 還生의 요소를 한국적인 행복관과 결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죽기 이전의 자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復活的 죽음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 태어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수명을 다하지 않고 잘못 염라국에 들어온 것을 안 세 선비가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항의하고 이에 염라대왕은 그 연유를 파악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ᄉᆞᆼᄉᆞ 치부책을 ᄂᆡ여 년조를 상고하라.

이와 같은 명령에 최판관은 염라대왕의 命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상고한다.

최판관이 명을 ᄇᆞ다 ᄌᆞ시 상고ᄒᆞᆫ 즉 판결 틀녀 십년 후의 잡아 올 ᄉᆞ름을 ᄌᆞ례 잡아 왔ᄂᆞᆫ지라 이의 최판관이 ᄃᆡ경ᄒᆞ여 이ᄃᆡ로 념왕긔 알외니 념왕이 또한 놀나 왈 셰 상의도 탐관오리 슈ᄌᆞㅣ 극법ᄒᆞᄂᆞᆫ 거슬 각별 삷피ᄂᆞ니 ᄒᆞ물며 디부의셔 공ᄉᆞ 그릇ᄒᆞᄂᆞᆫ 말이 그 엇지 되는 말이냐.

이에 염라대왕이 빨리 세 선비를 되돌려 보내라 하자 세 선비는 속으로는 좋아하지만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장례를 지낸지가 오래되었으니 어디에 혼백을 붙일 것이냐고 따진다. 이어 염라대왕과 세 선비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오갔다.

언즉시애라 이의 달ᄂᆡ여 왈 그러ᄒᆞ면 아모 ᄌᆡ상가의 네 가문과 갓튼 집의 졈지ᄒᆞ여 줄거시니 도로 나가라 삼인이 다시 왈 조히 잇ᄂᆞᆫ ᄉᆞ름을 잡아다가 오거라 가거라 ᄒᆞ니 응당 그 갑시 이슬지라 쇼생들의 원ᄃᆡ로 졈지ᄒᆞ여 주쇼셔 념왕이 또 왈 너희 쇼원ᄃᆡ로 알외라.

이리하여 세 선비는 각기 자신들의 소원을 적은 所志를 써 올린다. 첫 번째 선비

는 天下의 영웅이 되어 富貴功名을 한 평생 누리게 해달라고 했고, 두 번째 선비는 천하의 명 宰相이 되게 해달라고 했으며, 세 번째 선비는 神仙이 되어 長生不死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앞의 두 선비는 그 소원대로 해 주었으나, 세 번째 선비에 대해서는 天下에 욕심 많고 無據不測한 놈이니 당장 내쫓으라고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숨을 거두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다시 자신의 시신으로 그 혼백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당대의 사고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還生은 기존의 삶에서는 추구할 수 없었거나 여러 제약에 걸려 근접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루지 못한 현실에서의 바람과 희망을 還生이라는 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의식과 사상이 고소설의 여러 작품에 정도의 차이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Ⅴ. 죽음과 幻生의 양상

幻生的 죽음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신선이나 정령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 본 復活的 죽음이나 還生的 죽음과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로 재생하느냐 하는 것에서 그 차이를 나눠 볼 수 있다. 復活的 죽음은 靈魂이 죽기 이전의 자신에게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還生的 죽음은 현실계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후 그 靈魂이 여러 경로를 통해 죽음 이전의 현실계로 돌아가나 죽기 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 장에서 살펴볼 幻生的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계기로 그 이후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도선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확히 도선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전통적 관념 속에서는 어느 특정한 사상 하나가 단독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사상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기 때문에 도선적 사고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죽어서 仙界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능하지 않을 이야기어서 민담이나 전설, 그리고 소설 작품 등에 투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기한 꼬챙이', '異人이 된 소금장수' 등의 이야기에서는 신선이 되기보다는 하나의 精靈이 되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 일 것이다. 이처럼 精靈에 대한 사고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현실 문제를 풀어주는 神仙的 能力을 지닌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본격적인 幻生的 죽음은 고소설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이러한 신선으로의 幻生 과정이 그 작품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죽음 이후에 대한 당대의 사고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관심을 기울일만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사상과 죽음에 대한 유형이 잘 나타나 있는 <숙영낭자전>과 <유문성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仙界로의 幻生 - <숙영낭자전>

이 작품은 양반 사회·양반 가정을 배경으로 하여 도선 사상에 바탕을 둔 비현실적 사건을 중심적인 소재로 하여 이루어졌다. 작품 구조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으로 이루어졌는데,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르고 혼인시키고 출세시키는 것을 가문의 영예와 자신들의 영화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자식에게 효를 요구한다. 반면 자식은 그들끼리 사사로이 연애를 하여 부모의 허락없이 혼인을 하고 출세 같은 것은 부부생활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면서 부부간의 애정을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이로 인해 효를 요구하는 부모와 애정을 추구하는 자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이 발전하면서 처절한 가정 비극을 거쳐 마침내 부모의 생각이 비판되고 자식의 의지가 그 타당성을 입증 받는다. 효는 유교 도덕에 바탕을 둔 봉건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이며, 애정의 추구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하는 새로운 가치관이기이다. 따라서 이 두 가치관은 시대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야기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후자의 가치관이 전자의 가치관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이는 조선 후기 사회에 실제로 있었던 가치관의 변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문학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비현실적이고 구성과 주제가 통속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소 과소평가 되어오다가 최근에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작품이다. 본고에서는 죽음과 재생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찰고자 하며 이 작품의 개략적 구조는 다음과 나누어 볼 수 있다.

㉠ 백산군과 아내 정씨 사이에는 이십여 년 동안 아이가 없어 부처님께 빌어 선군을 얻는다.

㉡ 선군이 약관 때, 책을 읽다가 꿈을 꾸었는데 선녀가 나타나 '본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선관인데 비를 잘못 내려 그 벌로 인간으로 태어났다. 인간에서 나와 결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

㉢ 이 때부터 선군은 선녀를 못 잊어 병이 나 자리에 눕자, 다시 선녀가 나타나 자신의 畵像과 금동자 한 쌍을 주고 간다.

㉣ 시녀 매월을 보내도 병이 낫지 아니하자 옥련동에 와서 자기를 찾으라 한다.

㉤ 선군이 옥련동에 가서 한 선녀를 만나는데, 인간인 선군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 선군이 버티자 자신이 바로 숙영이라고 밝힌다.

㉥ 삼 년을 더 지내야 다시 선녀로 되니 기다리라 하였으나 선군이 간청하여 동침하고는 집으로 데려오고 아들과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숙영은 부모와 의논하여 선군이 과거를 보러 가게 한다.

㉦ 선군은 과거를 치르러 떠났으나 숙영이 보고 싶어 하룻밤을 못 넘기고 밤에 몰래 부인 방으로 들어가자, 시부 백상군은 이를 외간 남자로 의심하여 이틀을 계속 지켜보다가 매월을 시켜 감시토록 한다.

㉧ 매월이 숙영에게 질투를 느끼던 터라 불량배로 하여금 숙영 방에 침입하게 하고 백상군에게 알려 숙영은 문초를 당한다.

㉨ 숙영은 문초를 당한 뒤 칼로 자결하여 죽었으나 칼이 빠지지 않아 염습을 못 한다.

㉩ 선군이 급제하여 돌아온다는 연락이 오자 백상군은 숙영이 죽은 것을 알고 슬퍼할까 걱정되어 임 진사의 딸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게 준비한다.

㉪ 금의환향하는 길에 선군은 숙영이 죽은 줄 꿈으로 알게 되어, 임 낭자를 거절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죽은 숙영을 본다.

㉫ 외간 남자의 침입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부모의 말을 듣고 하인들을 문초하는데 이 때 파랑새가 매월이 범인임을 알려 준다.

㉬ 매월을 처형하고, 옥황상제가 숙영을 다시 살아나게 해 주고, 나중에 삼인이 승천하리라 한다.

㉭ 숙영이 원하여 임 낭자를 후처로 들이여 아들 하나를 낳게 하고 함께 살다 팔십세에 세 사람은 승천한다.

<숙영낭자전>은 주인공이 일상적 인물이 아니고 신선계에서 적강한 고귀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전형적 적강 소설로서는 문제가 있는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35] 작품 속의 주인공이 천상적인 주재자의 의도에 따라 미리 계획되어진 그들 자신의 숙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천상에 득죄한 이후 처음 거취한 곳이 옥련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옥련동은 인간계의 그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선군을 만나기전 도를 닦는 수도의 장[36]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옥련동 또한 천상계와 일치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다.

> … ᄎᆞ시ᄂᆞᆫ 츈풍가졀이라 션군이 셔당에셔 글을 닑더니 ᄌᆞ연 몸이 곤ᄒᆞ야 궤를지혀 됴올ᄉᆡ 문득 록의홍상ᄒᆞᆫ 낭ᄌᆡ 지계를 녈고 드러와 ᄌᆡ 빈 하며 겻ᄒᆡ 안ᄌᆞ 닐오ᄃᆡ 랑군은 쳡을 몰나보시ᄂᆞ니잇가 쳡이 이에 ᄎᆞ져 이르믄 다름아니라 과연 텬연이 잇기로 ᄎᆞ져왓ᄂᆞᆫ이다 션군이 답왈 나ᄂᆞᆫ 진셰속긴이오 그ᄃᆡᄂᆞᆫ 텬상션녀 여날 엇지 연분이 잇다ᄒᆞᄂᆞ뇨 낭ᄌᆡ 같오ᄃᆡ 랑군이 하날에 비쥬ᄂᆞᆫ 션관으로 비를 그릇준 죄로 인간에 젹강ᄒᆞ얏스나 일부 상봉ᄒᆞᆯ 날이 잇ᄉᆞ오리이다 ᄒᆞ고 문득 간ᄃᆡ 업거ᄂᆞᆯ 션군이 귀이히 넉여 그 죵젹이 묘연ᄒᆞ고 여향이 오히려 ᄉᆞ라지지 아니ᄒᆞ야 졍히 여유쇼실ᄒᆞ야 ᄒᆞ더니 문득 깨달으니 남가일몽이오. …

이렇듯 선군과 숙영이 天上界의 인물임이 꿈으로 명확히 암시되고 있다. 또한,

> 낭ᄌᆡ 압ᄒᆡ 와 안지며 위로 왈 낭군이 날노 말미아마 져럿틋 셩병ᄒᆞ여 스니 쳡의 마음이 미안ᄒᆞ고 가셰 또ᄒᆞᆫ 빈 한ᄒᆞ미 근심되는 고로 쳡의 화샹과 금동ᄌᆞ 한 쌍 가져왓ᄉᆞ오니 이 화샹은 낭군 침실의 두어 밤이면 안고 ᄌᆞ고 …

와 같이 다시 선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한 이후에 선군이 자신을 못 잊어 병이 나자 자신의 畵像과 금동자 한 쌍을 주고 가는 대목 또한 天上界 인물로서의 신이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고소설의 여주인공이 직접 인간계에 출생하여 성장한 후 남주인공과 결합하는 일반적 구조

---

35) 성현경, 위의 책.
36) 전용문, 「숙영낭자전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목원대학교, 1995, p.38.

와는 약간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정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작품은 염정 소설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작품 전반에 남녀의 애정의 성취가 깔려 있고 그 성취를 확보 보장하는 장치로서 초월세계의 질서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대 사회는 목숨을 내 거는 희생이 없거나 천명을 내세움 없이는 선남선녀의 자유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포용력을 지니지 못했다.[37] 선군이 과거를 보로 상경한 이후에 집안을 순시하던 백공이 숙영의 방에서 남자 목소리를 듣는데, 실은 숙영을 잊지 못해 집으로 돌아온 선군 인지 모르고 시비 매월을 시켜 감시하게 한다. 시비는 선군을 사모하였던 터라 간계를 꾸며 백공에게 거짓을 고하고 이에 백공은 노복을 시켜 선군을 잡아와 숙영을 문초를 하지만 다시 하게 이른다.

> 백공이 분노하여 노ᄌᆞ을 호령ᄒᆞ여 낭ᄌᆞ을 결박ᄒᆞ라 ᄒᆞ니 노ᄌᆞ 일시의 다라드러 ᄂᆞᆼᄌᆞ의 머리를 산발ᄒᆞ여게 하의 안치니 그 경상이 가련하더라 백공이 ᄃᆡ로질 왈 죄상은 만ᄉᆞ모셕이니 ᄉᆞ통ᄒᆞᆫ 놈 밧비 일으라 ᄒᆞ고 ᄆᆡ로 치니 백옥 갓튼 귀밋히 흐르나니 눈물이요. 옥갓튼 일신이 솟나니 육혈이라.

숙영에게는 천만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숙영은 '무죄ᄒᆞ온 이내 마음 삷피소셔 오월비상지원의 십년 불우 지원을 뉘라셔 푸러ᄂᆡ리오' 하며 슬피 울며 자신의 억울함과 죄 없음을 토로한다.

> 백공이 위로왈 ᄌᆞ고로 현인군ᄌᆞ도 혹 참소을 바다며 슉녀현부도 혹 누명을 엇나니 낭ᄌᆞ도 일시 액운이라 너모 고집지 말고 노부의 무르믈 돌녀 생각ᄒᆞ라

백공 부부가 자신들이 숙영을 오해함을 위와 같이 사과하나 이미 숙영은 백공에게 잡혀오는 과정에서 '낭ᄌᆞ는 엇던 놈과 통간ᄒᆞ다가 ᄋᆡ ᄆᆡ한 우리등을 즁히 슈장허괘 ᄒᆞᄂᆞ이 잇가 무죄ᄒᆞᆫ 우리등을 꾸지람 들니지 말고 어셔 가ᄉᆞ이다' 라며 노복

37) 이현수・김수중, 앞의 논문.

들에게까지 조롱과 멸시를 받았으니 그 수모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더러운 악명이 세상의 나타ᄂᆞ고 엇지 부그럽지 아니리잇고 낭군이 도라오면 상ᄃᆡ 홀 낫치 없ᄉᆞ오미 다만 죽어 세상을 잇고져 ᄒᆞᄂᆞ이다.

자신의 정절에 대한 의심과 그로 인해 당한 수모를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 슬프믈 니긔지 못ᄒᆞ야 금침을 도도고 셤셤옥슈로 드ᄂᆞᆫ 칼을 드러 가ᄉᆞᆷ을 질녀 죽으니…

숙영은 자신의 결백을 나타내려는 강열하고도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여 자결을 하게 된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극한적 방법으로 밖에 자신의 문제를 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에서는 어찌 해 볼 재간이 없었던 상황에서 진실과 정절을 죽음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숙영의 죽음이 현실에서는 순결의 지킴이고 자신의 결백에 대한 최후의 행위이지만 이것이 바로 주인공들을 幻生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숙영의 죽음은 이중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작품 후반에 가서 선군이 한칼로 목을 베이고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어 숙영에게 누명을 씌운 매월을 처형하자 숙영이 現夢하여 말하기를 玉皇上帝가 만날기한을 어기고 인연을 맺었으므로 자신이 비명횡사하였음이라 말하고 玉帝에게 청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고 수령을 80으로 정하여 같은 날 승천하게 하였으니 수일만 기다리라고 한다. 억울하게 죽은 숙영이 다시 부활하여 福樂을 누리다가 정해진대로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은 神仙界로의 진입을 뜻한다. '백선군은 인간의 재미가 어떠하뇨? 그대 부부 삼인의 승천할 기약이 오늘이니 빨리 가자 하고 하늘로 불러 올렸다' 라는 부분에서 그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인간의 삶을 살았고 현세에서의 삶을 다한 이후에 仙界로 진입하여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감

을 의미한다.

이처럼 <숙영낭자전>은 다분히 환상적인 내용적 측면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작품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없었던 점도 있었지만, 작품에서 선녀가 인간으로 출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상에 내려와 산다고 설정하는 극단적 신비화[38]와 죽음이 곧 현실에서의 끝과 여타의 인물들을 동반하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계기가 된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또한, 유교도덕에 바탕을 둔 봉건적·전통적 가치관과 애정의 추구라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부딪치고 있다는 점 등에서도 가치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살피고자하는 죽음의 양상에 있어서도 復活과 幻生이 동시에 나타나는 작품으로서도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2. 영웅으로서의 幻生 - <유문성전>

<유문성전>은 크게 전반부의 애정담과 후반부의 영웅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작품의 전반부는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고난을 겪고 이를 극복하여 결합하는 '혼사장애담'의 유형 구조로 되어 있다. 후반부는 영웅의 활약과 업적 달성이라는 영웅담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적인 영웅 소설에 제시되는 '영웅의 일생' 유형 구조를 중심으로 주인공의 일대기가 전개된다. 이 작품은 혼사 장애의 고난이 영웅의 고난으로 발전하면서 주인공이 영웅적 삶을 살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특이한 구조[39]를 지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원(元)나라 시대에 주인공 문성은 유승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 과거에 응시차 상경하는 도중 洛陽에 이르러 이승상의 저택 앞을 지나다가 후

38) 김일렬, 「도선적 신비 속의 사회적 현실」, 『어문논총』 제 29집, 경북어문학회, 1995, p.53.
39) 류호민, 「유문성전(柳文星傳)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44.

원에서 소요하고 있는 이승상의 딸 이소저를 발견한다.

㉢ 그는 이소저에 대한 연연한 정을 이기지 못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것도 중단하고 돌아와서 이소저를 사모하던 끝에 병이 난다.

㉣ 죽음에 다다른 아들의 고백을 들은 유승상은 즉시 이승상을 찾아가서 청혼하여 혼약을 맺고 돌아오니 문성의 병도 완쾌를 보게 되었다.

㉤ 이 때 천자는 후궁을 두지 못하고 있다가 이승상의 딸이 賢美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승상을 불러 청혼하자, 크게 놀라고 이미 정혼하였음을 상소한다.

㉥ 천명을 거역한다고 크게 노한 천자는 이승상과 유승상을 투옥하고 승낙을 받으려다가 우연히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니 승상은 석방되어 나온다.

㉦ 석방된 후 유승상은 병이 나서 아들의 성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니 그의 부인도 뒤따라 병이 나서 죽자, 이승상은 고아가 된 문성을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며 성례의 날을 기다린다.

㉧ 이 때 우승상 달목이 이승상의 딸이 賢美하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과의 결혼을 청하나 거절을 당하자 천자를 움직여 권세로써 강박하니 이승상은 부득이 승낙한다.

㉨ 이에 이소저는 별당에 거처하고 있는 약혼자 문성에게 연락하여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피신하라 한다.

㉩ 문성은 눈물로 이별하고 나와 방황하다가 부모의 무덤 아래에 가서 막을 지어 놓고 살고, 이소저는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 없어 달목의 아들과 성례하고 부夫家로 가는 도중 목을 매어 죽는다.

㉪ 이승상은 딸의 유서에 따라 유승상의 先山을 찾아 가다가 도중에서 강도를 만나서 가지 못하고 청려산 개운사 앞에 묻어 놓고 돌아간다.

㉫ 문성이 이소저의 현몽을 얻고는 비로소 죽은 줄을 알고 이소저의 무덤을 찾아 제사를 지내는데 홀연 공중에서 청아한 哭聲이 나며 墳墓가 벌어지면서 이소저가 홀연히 나온다.

㉬ 문성은 이소저를 끌어안고 통곡한 뒤 같이 가다가 일광도사를 만난다.

㉭ 그들은 일광도사로부터 병법과 도술을 7일 간에 다 배우고 이소저는 男服으로

갈아입는다.

㉮ 이 때 조정에서는 달목이 간신을 규합하고 반역을 도모하여 천자를 축출하고 왕위에 올라 천자가 되자 사방에서 의병이 일어나 역적 달목을 치려 한다.

㉯ 冀州 지방에 사는 주태공이라는 사람이 觀音道士로부터 병법과 도술을 배우고 남방으로 내려가서 인심을 수습하여 영웅을 모아 장차 달목을 치려고 하니 그 군사가 수십만이나 되었다.

㉰ 일광도사를 하직하고 내려오다가 장사치로 강변에 머물고 있는 일당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 두목 자약을 부하로 삼으니 수천 명이었다.

㉱ 부서를 정하고 군령을 내려 장졸을 훈련시키면서 황성을 향하여 진군한다.

㉲ 이 때 朝鮮 黃海道 平山 지방에 사는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천자의 기상을 타고 났다.

㉳ 坡陵 땅에 사는 유기라는 사람이 주원장이 천자의 기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동료 이정과 함께 주원장과 結義兄弟하고 주원장을 도와 창생을 구제하고 창업을 도모하려고 英雄 名將을 규합하니 그 수가 십만이었다.

㉴ 중국으로 건너 와서 군사를 일으키고 皇城을 향하여 진군을 개시하고 이에 유원수와 주원수가 서로 천하를 도모하려고 싸우게 된다. 양 원수가 아무리 전력을 다하여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

㉵ 유원수가 하루는 일광도사의 현몽을 얻고는 주원수가 천자의 기상임을 알게 되고, 주원수와 화친하고 결의형제를 맺으니 주원수는 맏이 되고 유원수는 째 되며 유기는 셋째 되고 이정은 넷째가 된다.

㉶ 兩軍을 통합하여 주원장이 대원수가 되고 유문성이 부원수가 되어 황성을 쳐 달목을 베고 주원장이 천명에 의하여 천자가 되고 국호를 大明이라 한다.

㉷ 그 후 유원수는 燕王이 되어 부귀를 일세에 누리다가 승천하여 신선이 되었다 한다.

이 작품에는 문성과 이소저가 결합하기까지 외부에 의한 고난과 시련을 겪는데 첫 번째는 황제가 이소저를 후궁으로 삼기위해 문성과 이소저의 혼인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

시련은 황제의 죽음으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두 번째는 당시 세력가 우승상 달목이 이소저를 며느리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우승상 달목이 천자를 움직여 압박을 가하니 어찌할 수 없이 이승상도 승낙을 하게 된다. 이에 이소저가 문성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의 일편단심을 이야기하고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자결할 것임을 전하다. 그러나 문성은 답장에서 저승보다는 현실의 삶에 애착을 보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 장부 셰상의 처ᄒᆞ야 한반 고생을 지ᄂᆡᄂᆞᆫ것슨 상사라 액운이 다ᄒᆞᄂᆞᆫ날이 이슬게오 왕운이 도라오ᄂᆞᆫ 날이 잇슬지라 웃지 녹녹히 이세상을 지ᄂᆡ리잇가 죽어셔 디하에 맛ᄂᆞᆫ거시 사라셔 액운을 면ᄒᆞ고 인간에셔 방연을 맺ᄂᆞᆫ것ᄆᆞᆫ ᄒᆞ오릿가…

이는 당시 사람들이 죽어 저승에서 복록을 누리겠다는 종교적 의미의 내세관이 아닌, 살아있는 현상의 세계에서 부귀공명을 얻고자 하는 현실적 인생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40],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성이 이소저를 설득시키기 위한 이야기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의 命을 거역할 수 없는 이소저는 달목의 아들과 婚姻하고 夫家로 가던 중 자결한다.

> 달생이 낭자의 뎡을 압셰우고 도라올새 쌍쌍시녀ᄂᆞᆫ십리에 라열ᄒᆞ고 위의 찬란ᄒᆞ니 관광인이 칭찬안이리 업더라 월릐 낭ᄌᆞ츙효 겸젼ᄒᆞ고 절행이 빙셜갓흔지라 엇지 ᄃᆡ례젼에 못죽엇스리오ᄆᆞᆫ 후환을 염려ᄒᆞ야 잠시 참고 달가에 혐의가 업게홈 일너라 차셜 이때 승상이 친쳑과 빈객을 모흐고 대연을 ᄇᆡ셜ᄒᆞ고 기다리더니 이윽고 신부의 교ᄌᆞ당도ᄒᆞᄂᆞᆫ지라 시녀들이 뎡문을 열러보니 낭ᄌᆞ 슈건으로 목을 ᄆᆡ여 죽엇ᄂᆞᆫ지라…

이처럼 현실에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죽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 초극으로써의 죽음의 한 양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승상은 딸의 시신에서 나온 유

---

40) 임원균, 앞의 논문, p.22.

서에 따라 유씨 선산을 찾아 가던 중 도적을 만나 가지 못하고 청려산 개운사 앞에 묻고 황망히 돌아가고, 문성은 꿈에서 낭자를 만나보고는 비로소 낭자가 죽은 줄 알고 꿈에서 봄대로 청려산 낭자의 무덤을 찾아 祭를 올리며 통곡을 하니 죽은 이소저가 살아난다.

> …쳥ᄋᆞᄒᆞᆫ 곡셩이 공즁에ᄂᆞ며 분묘가 버러지더니 꼿갓튼 낭ᄌᆞ 묘중에서 ᄂᆞ오ᄂᆞᆫᄃᆡ 신ᄉᆡ 의연ᄒᆞᆫ지라 낭ᄌᆞ의 졀행을 하ᄂᆞᆯ이 감동ᄒᆞ사 그원억ᄒᆞ고 참졀ᄒᆞᆷ을 불상이 여기시고 그 인연을 만ᄂᆞ 적원심수를 풀게ᄒᆞ심이니 엇지 ᄉᆞᆼ환키어려우리오…

황제와 연합한 달목의 억압으로 인해 불행에 빠진 문성은 자결한 이소저가 다시 살아남에 따라 불행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일광도사를 만나 병법과 도술을 익혀 영웅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문성이 영웅적 삶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이소저가 부활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復活的 죽음의 양상이 나타나 있지만, 단순히 이소저의 再生을 하나의 종결된 사건으로만 보기보다는 문성으로 하여금 불행했던 삶에서 벗어나 영웅적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天上界로 청학과 백학을 타고 백일승천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적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선관 선녀가 내려와 천상계로 올라오기를 권하고, 이에 문성과 이소저가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본디 인간 사람이 아니라 천상 사람인데 죄를 짓고 적강하였던 것이며, 상제의 명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거역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승천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끝이 난다. 바로 이러한 천상계로의 승천은 현세에서의 삶을 마치고 본래의 세계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문성전>에는 여주인공의 復活과 남녀 주인공의 幻生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幻生적 죽음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것보다는 <숙영낭자전>의 경우와 같이 작품 속에서 죽음의 다른 유형과 결합되어 나타남으로써 작품의 완결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죽음 이후에 幻生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거나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등의 덕업을 쌓아야 하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하는 것으로 여기었던 것이 당시의 보편적 관념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사고를 <유문성전>이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Ⅵ. 結 論

한국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고소설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고소설 속의 죽음은 매우 다양한 층위를 보이고 있다. 비극적 현실에 대한 저항 내지는 超越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도덕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권선이나 원하지 않게 맞이한 문제에 대한 해원의 기제로서 의미를 갖기도 한다.

또한, 죽음이 단순이 생의 끝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또는 그 당시 사회가 갈망하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나타내기도 하며, 不老不死와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심에 도달하는 관문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죽음 이전에 갖고 있던 소극적이고 폐쇄적이며, 봉건적 삶의 태도를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진취적 삶의 태도를 가져오는 思考의 轉換을 가져오기도 한다.

소설에서 주인공의 죽음은 자아실현의 중단을 의미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고난의 한계점에서 죽은 주인공은 천상계와 연결되어 다시 태어나고 중단된 자아실현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 양상을 크게 復活的 죽음・還生的 죽음・幻生的 죽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復活的 죽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 생명을 더 해가는 것을 말하는데, 고소설 작품 속에서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 본래의 자신의 삶을 더 해가는 인물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간다. 부활의 공간은 물속, 墓이 등인데, 이것은 죽음의 공간이라고 인식되는 곳이 바로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죽음과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죽음의 원인은 등장 인물간에 존재하는 가치관의 차이와 이로 인한 갈등에 있고, 재생방법은 천상계의 지시나 仙藥에 의해 재생한다.

還生的 죽음은 <삼생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자신이 경험하기 어렵거나 이룰 수 없는 것을 초극하려는 의지로 보여진다. 이들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죽음의 원인

은 주인공의 가치관이나 의지에 관계없이 천상계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시 태어나는 방법도 천상계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새로 탄생하거나 다른 사람의 육신을 빌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 이전의 생활과는 그 존재적 위치부터 다르고 삶의 향방 역시 다르다.

마지막으로 幻生的 죽음은 죽은 이후에 신선이 되어 천상계로 가거나, 다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한 이후에 승천하는 것으로, <유문성전>이나 <숙영낭자전>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幻生的 죽음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평소 선망하고 존경 했던 신선 등으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죽은 이후에라도 生老病死를 초월하는 그 어떤 존재로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당시의 내세관이 매우 잘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고소설에 나타나는 죽음의 양상은 죽음의 형태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하는 것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앞으로 고소설뿐 아니라 향가나 시조 등 우리 고전 문학 전반에 걸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1. 단행본

김수중, 『신화와 문학정신』, 조선대학교 출판부, 1996.
김열규외 3인, 『한국인의 죽음과 삶』, 철학과현실사, 2001.
김인회, 『韓國巫俗思想硏究』, 집문당, 1987.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류동식,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박대복, 『고소설과 민간신앙』, 계명문화사, 1995.
박태상, 『한국 문학과 죽음』, 문학과지성사, 1993.
설성경・박태상,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96.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새문사, 1989.
손길원, 『고소설에 나타난 도선사상 연구』, 민속원, 1999.
이은봉, 『한국인의 죽음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이인복,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사적 연구』, 열화당, 1979.
이인복외 9인,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 예림기획, 2002.
정규복・소재영・김광순, 『韓國古小說硏究』, 이우출판사, 1995.
조흥윤, 『巫와 민족문화』, 민족문화사, 1991.
최운식, 『옛이야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삶과 죽음』, 한울, 1992.
최운식, 『한국 고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5.
한국고소설학회, 『한국고소설의 자료와 해석』, 아세아문화사, 200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삶 그리고 죽음』, 대한교과서(주), 1995.
한국종교학회, 『죽음이란무엇인가』, 도서출판 창, 1990.

2. 논문류

김경재, 「불교와 기독교의 죽음이해에 대한 명상」, 『신학연구』 제 37집, 한신대학교, 1996. 8.
김귀석, 「가정소설의 설화적 요소 고찰 -죽음・재생・꿈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 37집, 한국언어문학회, 1996. 12.
김동식, 「신소설에 등장하는 죽음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 11집, 한국현대문학회, 2002. 6.
김민영, 「고소설에 수용된 변신 화소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수중, 「韓國神話를 통하여 본 原初的 人間의 意味」, 『인문과학연구』 제 13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1. 12.

_____, 「韓國神話와 古小說에서의 죽음 超克 방법에 관한 考察」, 『한국언어문학』 제 38집, 한국언어문학회, 1997. 6.
_____, 「설화 연구의 대중화 가능성」, 『한국언어문학』 제 51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12.
김의숙, 「古典小說의 佛敎思想 硏究」, 『동악어문논집』 제 12집, 동악어문학회, 1980. 4.
김일렬, 「도선적 신비 속의 사회적 현실」, 『어문론총』 제 29호, 경북어문학회, 1995. 12.
_____, 「고전소설에 나타난 기이성 연구」, 『어문학』 제 63집, 한국어문학회, 1998. 2.
김종의, 「한국인의 삶과 죽음」, 『철학논총』 제 16집, 새한철학회, 1999. 2.
김현용, 「왕랑반혼전의 형성에 관한 일고찰」, 『국어국문학』 제 51호, 국어국문학회, 1971. 1.
김효미, 「古小說에 나타난 寃鬼 硏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류병일, 「韓國敍事文學의 再生話素 硏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류호민, 「유문성전(柳文星傳)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대복, 「古小說에 受容된 民間信仰 硏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박상권, 「古小說에 나타난 再生意識 硏究」,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박영운, 「時調文學에 나타난 죽음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박영호, 「고전소설을 통해 본 한국인의 죽음 의식」, 『문학한글』 제 10호, 한글학회, 1996. 12.
박태상, 「原初的 巫俗信仰에 나타난 죽음意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사재동, 「王郞返魂傳의 몇 가지 問題」, 『한국언어문학』 제 13집, 한국언어문학회, 1975. 11.
서규태, 「王郞返魂傳의 思想과 構造」, 『국어국문학』 제 104호, 국어국문학회, 1990. 12.
안중주, 「再生系 小說에 나타난 再生의 樣相과 構造的 特徵」,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이덕구, 「古小說에서 본 離別에 對한 硏究」,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이상택, 「古代小說의 世俗過程試論」, 『古典文學硏究』 제 1집, 한국고전문학회, 1971. 9.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이용재, 「韓國 古小說에 나타난 죽음의 硏究」,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이종철, 「古小說에 나타난 再生意味 考察」,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81.
이현수・김수중,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연구」, 『인문과학연구』제 13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1. 2.
임원균, 「고소설에 나타난 죽음과 재생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전경욱, 「金鶴公傳 異本攷」, 『古典文學硏究』제 9집, 한국고전문학회, 1994. 12.
전용문, 「숙영낭자전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제 27집, 목원대학교, 1995.
정준식, 「김학공전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민족문화』제 19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2.
정출헌, 「고전소설 연구의 몇몇 국면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문학연구』제 3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2. 12.
조상조, 「神話와 古小說에 나타난 再生의 構造 硏究」,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최운식, 「金鶴公傳 硏究」, 『국어국문학』제 74호, 국어국문학회, 1977. 4.
최진봉,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저승의 양상」,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하순철, 「古小說의 非現實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저작물이용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	학 번	20028025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강 정 욱 한문: 姜 柾 旭 영문: Kang Jeong-wook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23-31번지				
연락처	E-MAIL: zeuskjw@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한국 고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 연구 영문 : A Study on Aspects of Death in Korean Classic Novel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5 년 1 월 일

저작자: 강 정 욱(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총장귀하